

# 죽보출판에도 현대화 바람 분다

## 국한문 혼용에 사진 등 함께 편집... 최근에는 비디오죽보까지 등장

죽보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죽보편집도 새롭게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죽보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현상은 일반인들의 죽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해 주는 증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죽보만큼 보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책도 없을 듯하다. 대부분의 죽보가 한자를 아까까지 고수하고 있는 문자체제가 그렇고 방주관에 대별로 이미 사라진 인물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편집 자체가 그렇다. 신풍속도에 젖어 사는 젊은 층들이 보기에는 왠지 고리타분하고 갑갑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기존의 죽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죽보는 이전에 비해 획기적인 편집방향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가문의 내력 밝혀주는 역사서

죽보는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자기중심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을 기록한 것은 家乘이라 하고 한 과속을 대상으로 한 것을 派譜라 한다. 과보를 두개 이상 합쳐 편찬한 것이 世譜이며, 系譜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또 시조와 본관이 같은 여러 과속을 망라한 것이 大同譜인데, 보통 죽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동보를 말한다.

학자들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출간된 죽보는 文化柳氏의 죽보인 「永樂譜」(123)라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죽보 가운데 문헌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安東權氏의 「成化譜」(1476)로 1562년에 10책으로 간행된 文化柳氏의 「壽淸譜」보다 86년 앞선 것이라 한다.

일제치하에는 죽보에 대한 관심이 여타 학문보다 높아서 당시 발행되는 각종 출판물 중 죽보발행이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의 취락」 후편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발행 단행본 출판허가 건수는 1933년에 861건, 1934년에는 1090건이었는데 죽보의 발행건수가 1932년에 137건, 33년에 151건으로 나타나 있다. 인쇄에 의한 간행본 이외에 필사본의 유포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때, 당시 죽보발행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죽보는 1848년에 나온 「풍산김씨 세계」이고 한글과 한문을 섞어 쓴 것으로는 1763년에 나온 '예안이씨세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죽보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세대들은 단지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죽보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그러나 최근에 나온 죽보들은 한자 옆에

한글로 음을 표기해서 보기쉽게 되어

있으며, 여타 매체의 발달로 카세트

비디오테이프를 죽보를 만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향후 전자출판죽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데...

산업사회의 물결에 휩쓸려 돌아가는 현대에 들어와서도 죽보제작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있는데는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핵가족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생활여건이 좋아진 동시에 산업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에 대한 반작용현상이 죽보에 대한 관심과 죽보출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 한국 죽보신문사 최실광씨는 "죽보가 이전처럼 종손의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가후 20~30년이 지나면 자신의 조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가를 하면 죽보를 모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밝힌다.

순한글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한문의 틀을 벗어나 한글세대가 해독할 수 있도록 꾸민 죽보는 이제 상당수에 이른다. 가장 흔한 방식으로는 한자 옆에 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젊은층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있다. 그러나 순한글죽보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죽보에 관심있는 학자들 모두 입을 모아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조선시대의 관직을 한글로만 표기한다면 한문죽보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한글죽보가 보편화되지 않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국한문 혼용죽보의 체계 또한 기존의 것과 많이 다르다. 생사를 불문한 가족별 사진이나 주소록, 가족현황 등을 담고, 부록으로 연평대조표, 결혼기념일 등을 끼워넣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논설이나 수필도 실고 있는 죽보도 있어 가정보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죽보에 실리는 교서, 분묘등의 사진이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고, 분묘의 지적도나 그 소재를 주소까지 정확하게



일반인들의 죽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정독도서관 죽보자료실

기재하고 있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첨단기기를 이용한 죽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죽보를 카세트나 비디오테이프를 만들거나 마이크로필름에 담는 것이 바로 그것.

카세트 죽보가 등장한 것은 벌써 1986년경부터이다. 카세트 테이프와 소형해설책자로 구성된 이 '듣는 죽보'는 어려운 한문과 역사속의 왕조중심표시로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기존 죽보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유명성우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흘러나오기도 한다.

김해김씨의 경우 "때는 서기 42년 중국의 역사로는 후한 건무18년... 현대의 경상남도 김해를 중심으로 이른바 가락국이 창건되었고 그 첫번째 임금이 김수로왕이었는데..." 라는 식으로 시작, 시조에서 나누어진 파의 형성내력과 역사적 인물을 소개한다. 이와함께 각 파의 항렬과 묘, 서원, 경당 등의 소재지에 대한 설명도 실고 있어 자기 성씨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김해·광산·경주 김씨, 전주·경주 이씨, 밀양 박씨, 경주 최씨 등 17개성 40개본의 카세트죽보가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영상화 시도한 비디오죽보도 등장

카세트죽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영상화를 시도하고 있는 비디오죽보는 이제 전성기를 맞이할 체미를 서두르고 있는 듯하다. 지난해 최초로 비디오죽보로 제작된 것은 「한산이씨 영상죽보」. 130분짜리 VTR테이프에 다큐멘터리형식을 활용해 조상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남긴 것은 무엇인지 등을 모두 비디오 영상으로 처리하고 있어 영상매체시대의

젊은이들도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영상죽보는 조상들이 살았던 터전은 물론 인물을 설명하는 컴퓨터 그래픽, 삽화 등을 적절히 삽입해 고품의 죽보를 첨단과학에 적용시키고 있다. 영상죽보의 제작비는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아 1년 제작기간에 1억원도 채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죽보전문출판사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보전출판사의 경우 죽보제작량은 85년 80종에서 86년 130종으로 계속 증가추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죽보의 80~90%를 출판하고 있는 회상사의 경우 70년대에는 연간 60여종에 불과하던 죽보 제작량이 최근에는 1백여종 이상으로 늘어날 정도라 한다. 죽보를 제작할 때의 시간이나 비용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예를들어 대동보는 자손이 많을 경우 대략 몇십억대의 경비와 3~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1백권 내외의 소규모 가승보를 편찬할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비용에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전문원 이성수씨는 "현재 나와 있는 카세트죽보도 이미 낡은 방식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죽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책자형태의 죽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카세트죽보나 비디오죽보와 함께 향후에는 CD-ROM을 이용한 전자출판죽보의 등장도 기대해 볼만하다. 전자출판죽보는 한자사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맹점을 갖고 있지만 한자가 모두 전산화된다면 그 활용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 이성수 기자

# 체험적 育兒論 다양하게 쏟아진다

## 아버지의 경험 다룬 책 많아 ... 일기 소설 만화 등 형식도 갖가지

최근들어 서점가에 특색있는 육아일기가 계속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신과 태교, 그리고 출산과 육아에 이르는 각종 이론서와 지도서, 지침서가 대형서점의 한쪽 서가를 가득 메울 정도로 다수 출판되었지만, 체험적 육아일기의 출간이 한꺼번에 이뤄진 것은 불과 몇달 사이의 일. 생활의 조건이 향상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유별난 애정이 유아기까지 내려 앉은 것이다. 유태식 육아교육법, 연령별 육아법, 유아교육, 조기교육, 유아심리 등 이같은 관심을 반영한 출판물이 쏟아져 나왔고, 한때 아동 성교육서가 붐을 이룬 이후로 아동에 관련된 출판물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육아일기 출판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체험을 일기형식을 빌어 꼼꼼하게 기록한 육아일기 가운데 최근들어 출판된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필자인 게 공통분모에 속한다. 맞벌이부부가 보편화되면서 가사분담이 육아분담으로까지 확산된 데서 육아일기붐의 까닭을 찾을 수 있다면, 출판논리상 '당연한' 어머니의 육아일기보다는 아버지의 그것이 출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 필자의 대부분이 특수직업 종사란 점 또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만화가, 시인, 방송작가, 대학강사의 직함을 가진 이들은, 우선 집안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시간할애가 '유리'하며, '압력'도 있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딱딱한 이론서들과 달리 기저귀 가는 일에서부터 아기의 심리학과 등에 이르기까지 부모라면 누구나 겪게 마련인 아기기르기를 육성으로 들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면에서 이 책들은 무엇보다 읽는 재미라는 강점을 지닌다. 더군다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어서 일종의 감동마저 불러일으킨다.

### 대부분 특수직업 아버지가 필자

특수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들의 육아일기 신간을 꼽아보면, 「국화빵 새끼는 새끼 국화빵」 「시인과 포도의 왕자」 「반쪽이의 육아일기」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책들은, 육아일기에 아이와 부모의 즐거운 한때를 담은 사진을 수십장씩 실어 실감나게 꾸민 것이 편집상의 공통점. 먼저 「국화빵 새끼는...」(한라)은 현재 서울방송 코미디작가인 최성호씨가 터미네이

만화가·시인·방송작가 등의  
직업을 가진 젊은 아버지의 육아일기  
출판붐은 육아분담과 핵가족화로 인한  
관심의 결과로 파악된다.  
기저귀 갈기와 목욕시키기 같은  
육아의 '실전' 경험을 담은 이 책들은  
부모가 돼 겪게 되는 공동관심사라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뿐더러,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기회도  
함께 가져다준다.

터란 별명을 가진 3살짜이 아들 누리를 키우면서 겪은 갖가지 일들을 담은 책. 아버지 입장에서 누리가 일으킨 사건과 사고별로 원고를 정리하는 한편 아기의 눈에 비친 세상을 아기 입장에서 그린 일기를 후반부에 따로 덧붙여 재미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코미디작가답게 아기의 성장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특색있는 이 책에서 최성호씨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니 맘대로 자라라"라는 육아론을 펼친다.

경향신문을 통해 등단한 젊은 시인 조기원씨의 육아일기 「시인과 포도의 왕자」(한라) 역시 시인 아버지가 아들 범준이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며 쓴, 체험이 잘 드러난 책. 1부 '범준이는 아세로라감을 좋아한다' 2부 '범준이 오줌은 포물선을 그린다' 3부 '차소리도 빗소리로 들리던 시절'로 구성돼 있는데, 시인의 섬세한 눈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에 비친 개구장이 아들의 모습이, 삽입된 아기의 사진처럼 또렷하게 묘사돼 있다. 특이한 것은, 1부는 아기의 시점, 2부는 아빠의 시점, 3부는 엄마의 시점으로 기술돼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지루함이 없고 3자의 시각을 모두 엿보는 기회도 마련한다.

자신의 등록상표처럼 된 만화주인공의 이름을 제목삼아 「반쪽이의 육아일기」(여성신문사)를 펴낸 만화가 최정현씨는, 만화로 그린 육아일기라는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힘든 탄생' '장모님은 전문가' 등 아기를 키우며 생겼던 잊지 못할 일들을 12~14컷짜리 만화에 담아 내고 있는 저자는, '내 손으로 아기 기르는 재미'를 강조하며, 시사만평가의 이미지를 살려 부록으로 만평을 실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조혜정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는



최근들어 체험적 육아일기가 앞다투어 출판되고 있다.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 사회학적 부모, 좋은 부모로 나뉜다"고 전제하고,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이와 감정이입적인 관계의 나무를 키우며, 보살피줄 보모역과 엄격하게 훈련시킬 안내자역을 함께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 핵가족 등 신가족문화의 산물

젊은 아버지들의 육아일기에 비해 더욱 이색적인 것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출판된 「단비 엄마는 바쁘대요」(어린이들)가 단연코 첫손가락에 꼽힌다. 이 책의 저자 박순녀씨는 단편 「케이스 워커」로 60년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여류작가로, 외손녀를 맡아 키우며 쓴 일기를 모아 펴낸 것.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내 딸이 자기 딸을 맡겼다"고 표현하는 저자가 두 돌짜리 외손녀를 1년동안 키우며 힘겹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던 기억을 모은 육아일기다. 애당초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미국의 딸에게 편지에 적어 보내려던 것이 일기로 뒤바뀐 이 글들에는 친손자와 외손녀를 같이 키워야 했던 외할머니의 쉽지 않았던 1년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또한 부부가 번갈아가며 아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적은 「아이들 키우며, 나를 키우며」(고려원)도 이색적인 육아일기에 속한다. 고정욱 이연숙 부부가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동시에 우리 삶의 귀중한 흔적이란 생각에서 썼다"는 이 육아일기에는, 수유와 목욕시키기, 이름 짓기, 예방접종, 기저귀 발진 등과 같은 아기 기르기에 반드시 거쳐야 할 어려운 일들의 체험이 적혀 있다. 이들 부부는 책제목처럼 아기 기르기가 부모자신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데 관점을 모으고 있다.

우리 부모들에 의해 씌어진 육아일기와 함께 외국의 부모가 쓴 육아일기도 서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책들은 육아에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한다.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모두 시작되었다」(남궁옥 옮김, 하늘)는 미국의 인기칼럼니스트인 뱀 그리니,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첫돌까지 생긴 일들을 달별로 묶어 쓴 육아일기인데, "늘어난 한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육아기를 정의내리고 있는 책. 특히 육아일기면서도 아기가 태어난 뒤의 아내와 자신의 관계변화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 우리의 육아일기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 본문에서 저자는 "너는 내 친구야, 하지만 너는 언젠가 엄마를 친구로 여기지 않게 될거야"라고 적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서양 부모의 시각을 엿보게 한다. 「안녕하세요 베로니카」(폴디 버드 지음, / 최영금 옮김, 들녘) 또한 서양 육아일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69년 아르헨티나에서 출판돼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엄마가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대화체로 정리한 16편의 글로 구성돼 있는데, 8살때 어머니를 잃은 저자의 남다른 자식사랑이 절절하기까지 하다.

핵가족화로 인해 경험 없는 부부가 자식기르기의 책임을 온전히 떠맡게 되고, 맞벌이가 늘면서 아버지의 육아분담이란 새로운 가족문화가 이뤄지면서 늘고 있는 이같은 육아일기 출판은, 꾸준히 계속될 전망을 놓고 있다. 현재는 글쓰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책이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추어들의 출판참여도 증가해 다양성을 떨 것으로 예측된다.

— 최태원 기자